



바르고 정확하게

◆ 문장을 바르게 읽고 써 봅시다.



그림을 보고 문장을 바르게 읽고 써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은 십민준

곱슬머리 여자아이가 내 팔을 콕콕 찧었어요. 레이스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예뻐요.

“내 이름이야.”

나는 여자아이가 내민 종이를 슬쩍 보았어요.

‘우유할 때 유, 다리미할 때 다, 비에다 나온이니까 빈.’

곱슬머리 여자아이 이름은 유다빈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받침 글자가 어렵지 않아서 여자아이 이름을 쉽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자신 있게 종이에 내 이름을 적었어요. 유다빈이 내 이름을 잘 볼 수 있게 아주 크게 글자를 썼어요.

“너는 이름이 열 개야?”

“으응?”

나는 유다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열 개인 사람이 있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우헤헤헤! 10(십)민준이래! 너, 진짜 이름이 10민준이야? 아니면 열민준인가?”

도보람이 소리쳤어요.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쓰던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씨도 모르는 애인가 봐.”

“받침 글자도 아닌데 왜 모르지?”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귀에 콕콕 들어와 박혔어요. 안 듣고 싶어도 너무 크게 들렸어요. 자꾸만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콧구멍이 답답해진 것도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코를 킁킁거리려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보람이 내게 물었어요.

“야, 10민준! 솔직히 말해 봐. 너, ‘이’랑 ‘10’이랑 헷갈리지?”

“아냐, 아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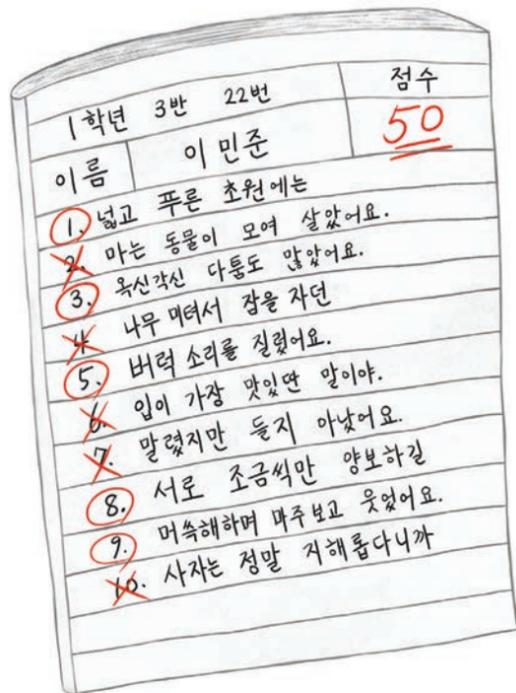
“자, 이제 받아쓰기 공책 꺼내.”

“여기서 꼭 봐야 돼?”

“당연하지. 10민준, 네가 교실에서는 유다빈이 불지도 모른다고 난리 쳤잖아.”

도보람이 가방에서 지휘봉을 꺼냈어요. 1학년 도보람에서 선생님이 되는 순간이지요. 지휘봉은 도보람이 삼촌 방에서 몰래 가지고 온 거라고 했어요. 다 나를 위해서라나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란 걸 알아요. 자보다는 지휘봉을 휘둘러야 더 선생님 같아 보이니까, 잘난 척 하려고 가지고 온 거겠지요. 도보람이 틀린 문제를 지휘봉으로 콕콕 찍었어요. 어찌나 세게 찍어대는지 저러다 공책에 구멍이라도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보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기 봐. 3번에는 ‘맞았어요’를 아주 잘 썼어. 마에다 니은 히읏 받침. 아주 좋아.”



이 문제를 받아쓰기할 때 고민을 아주 오래 했는데 다행히 정답을 맞혔어요. 나는 도보람을 향해 웃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보람이 소리를 썩 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2번 봐 봐, 10민준! 똑같은 ‘맞은’인데 왜 못 쓰니? 네가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어도 맞혔겠다. 3번을 쓰고 2번

을 봐 봐. 똑같이 따라 쓰는 것도 못 하나?”

갑자기 엄청난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도보람은 내 기분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나를 혼냈어요.

“4번 나무 밑에서! 나무가 미터?”

“그런 거 아니야.”

“조용히 해, 10민준. 6번이 가장 바보 같아. ‘입이 가장 맛있던 말이야.’ 어떻게 사람 입이 맛있니? 너, 입도 먹어봤어?”

나는 너무 놀라 입을 썩 벌렸어요.

1 「내 이름은 십민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민준이가 ‘유다빈’의 이름을 쉽게 읽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 2 친구들이 민준이를 ‘10민준’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3 도보람이 혼낼 때 민준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2 받아쓰기 시험지 중 틀린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마는	➡	
미터서	➡	
맛있판	➡	

3 민준이가 보람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틀린 낱말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보람아, 나 민준이야.

나에게 받아쓰기를 가르쳐 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의 말을

잘 듣지 아나서 미안해. 넌 참 지해로운 것 같아. 나도 아프로

열심히 공부할게.

안녕.

민준이가

➡	➡	➡
---	---	---

4 틀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일'을 써 봅시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일

-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요.

-

-



배움 다지기

- 문장을 바르게 읽었나요?
- 문장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썼나요?

